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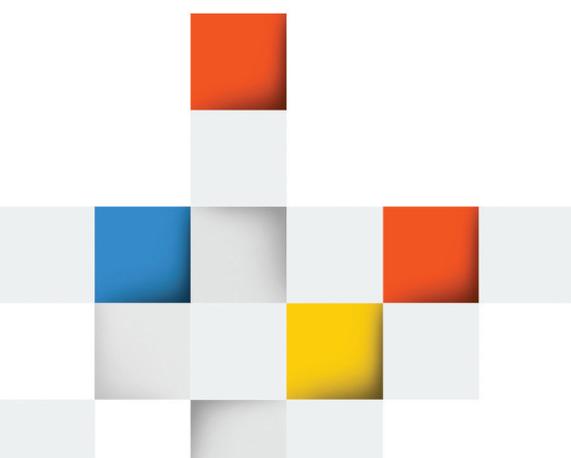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김경근 (고려대학교)

-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2008년 정점에 다다른 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0년에는 모든 교육단계 중 가장 높았으나 2017년 현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및 교육방법 만족도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학력 격차도 한층 심화했다.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했지만, 지난 10년간 의미 있는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진흥을 위해 1964년 설립된 이 기구에서 회원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도 거두지 못한 성과를 일구면서 주요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선진국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무엇보다 교육·훈련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한국에서 교육은 많은 사람을 무지와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잘 교육받고 훈련된 인력의 공급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교육·훈련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도 성장기에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작용했던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양극화의 그늘이 날로 짙어지는 가운데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간 한국에서 놀라운 경제발전을 뒷받침했던 교육·훈련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교육·훈련에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교육·훈련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다. 먼저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과 관련해서 교육단계



별 취학률과 진학률 추이를 살펴보고, 사교육 참여 실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평생교육기관 수 및 학습자 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및 교육방법 만족도, 부모의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와 관련해서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 드러난 성취도 수준 변화,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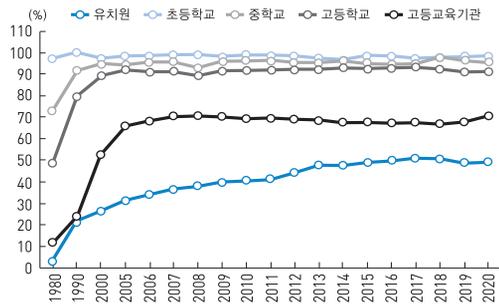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관련 지표들은 국민이 다양한 교육 또는 훈련 기회를 어떻게 누리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지 보여준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취학률, 진학률, 사교육 참여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생교육 참여율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단계별 취학률 및 진학률,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평생교육기관 수 및 학습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취학률은 국민이 교육기회를 얼마나 향유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로서, 각 교육단계별로 취학 적령 인구 가운데 실제 해당 교육단

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림 IV-1]에는 각 교육단계별로 1980년 이후의 취학률이 나타나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에 이미 97.7%로 실질적으로 완전 취학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일시적이지만 1990년에는 100.5%까지 높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취학 적령기(6-11세) 이전이나 이후에 취학했던 학생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취학률은 98.4%이다.

[그림 IV-1] 교육단계별 취학률, 1980-2020



- 주: 1) 취학률=(취학 적령 재적학생 수÷취학 적령 인구)×100.
 - 2) 취학 적령은 유치원의 경우 만 3-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만 18-21세인.
 - 3) 취학 적령 인구는 장래인구추계(2019)를 기준으로 하였음(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잠정추계로 다음 인구추계 시 변동될 수 있음).
 - 4)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이 포함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중학교 취학률은 1980년 73.3%이었고 1990년에 91.6%가 되었으며 2018년에는 98.0%까지 높아졌다. 이후 취학률이 다소간에 조정을 거치면서 2020년 현재 95.7%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 48.8%에 그쳤다. 하지만 1980년

대에 교육기회의 비약적인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에는 취학률이 79.4%가 되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그 후로도 줄곧 이어져 2017년 93.8%까지 높아졌다. 2020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은 91.4%로 보고됐다. 실질적인 보편교육 수준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더라도 취학률의 큰 변동은 없으리라 예측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1980년 11.4%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1년 졸업정원제가 시행되고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취학률이 급격히 높아져 2000년에는 52.5%로 상승한다.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그 뒤로도 상승세를 지속해 2008년 70.6%로 정점에 다다른 후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2018년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0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0.4%로 보고됐다.

유치원 취원율은 다른 교육단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은 1980년 2.8%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 30%를 넘어섰고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게 된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50%의 벽을 돌파하여 50.8%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취원율이 다소 하락해 2020년 현재 49.0%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미취학 아동 중 상당수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취원율이 낮더라도 많은 아동이 조기교육에서 소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8년 현재 한국의 만 3세 및 만 4세 취학률은 각각 92.3%, 93.8%로 OECD

평균 78.1%, 88.2%보다 높았다(OECD, 2020).

진학률도 교육기회의 향유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진학률은 각 교육단계별로 전체 졸업생 중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 비율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진학률은 취학률에 비해 노동시장 상황이나 입시제도 개혁 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고등교육 진학 단계에서 두드러진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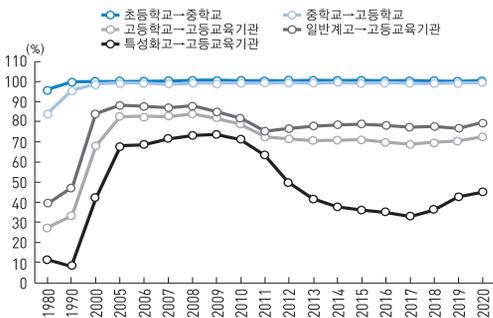
[그림 IV-2]에는 각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990년 이후 실질적으로 100%와 진배없는 수준을 보인다.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2000년 이후에 줄곧 99.6-99.8%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80년 27.2%에 그쳤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약적 상승을 보이면서 2000년에는 68.0%까지 높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이후로도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83.8%로 정점에 다다른 후 완만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2.5%이다.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진학률을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조사기준을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는 매년 2월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 합격자를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산출했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다소간에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낸 것은 대학에



진학하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졸업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계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11년 75.2%로 저점을 기록한 뒤에 다시 조금씩 높아져 2020년 현재 79.4%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9년 73.5%로 정점에 다다른 후 큰 폭으로 떨어져 2017년 32.8%를 기록했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여 2020년 현재 44.8%로 상승한 상태이다.

[그림 IV-2] 교육단계별 진학률, 1980-2020



주: 1) 진학률=(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당해 연도 졸업자 수)×100.
 2) 중학교 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3)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4) 고등교육기관 진학자에는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포함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5) 일반계·특성화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2004년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도입과 함께 대학에 좀 더 쉽게 진학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률이 90%에 달하는 등 특성화고 운영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대폭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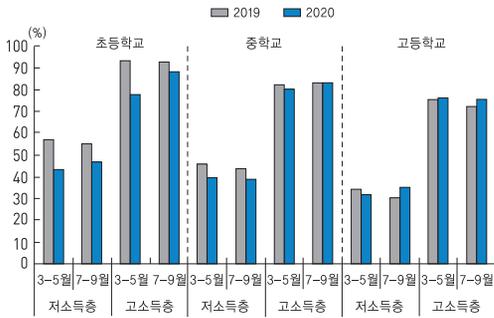
소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재직자 특별전형’을 제시하면서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고졸 취업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나 대학 진학 성과가 사교육 참여 정도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참여 실태는 교육·훈련의 기회 및 자원 영역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2020년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림 IV-3]에는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 양상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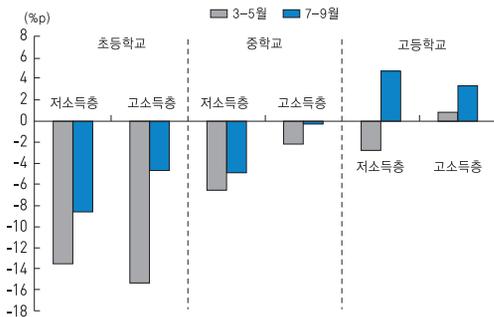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와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 변경이 있었던 2020년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보다는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더 컸으며, 같은 학교급 내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감소 정도가 더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19년 3-5월에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56.5%였는데, 2020년 같은 시기에는 43.0%로 낮아졌다. 2019년 7-9월에 이 저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54.9%였지만, 2020년 같은 시기에는 46.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그림 IV-3] 초·중·고 학생의 소득집단별 사교육 참여율 변화,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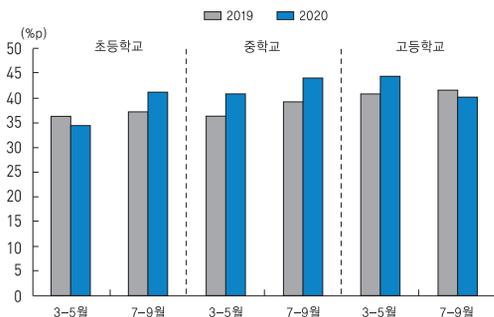
1) 사교육 참여율



2)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사교육 참여율 증감



3)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사교육 참여율 격차



주: 1) 사교육 참여율은 해당 학교급 및 소득집단 전체 학생 중 해당 기간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임.
 2) '저소득층'은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이고, '고소득층'은 월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 집단임.
 3) 참여율 격차=고소득층 참여율-저소득층 참여율.
 출처: 통계청,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원자료, 2019-2020.

3-5월에 월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92.8%였지만, 2020년 같은 시기에는 77.4%로 크게 낮아졌다. 2019년 7-9월에 이 고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92.1%였으며, 2020년 같은 시기에는 87.4%로 약간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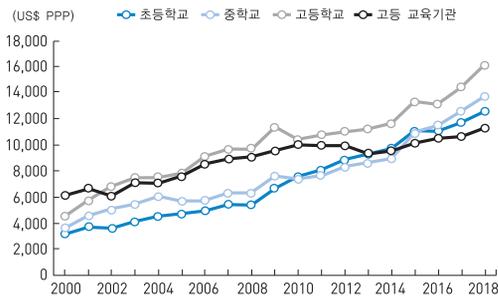
중학생의 경우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집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며, 월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집단의 사교육 참여율은 코로나 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저소득층 집단과 고소득층 집단 간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2020년에 더 심화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월가구소득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집단은 2019년보다 2020년에 사교육 참여가 일관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집단은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2020년 3-5월에는 사교육 참여가 줄었으나 7-9월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0년 3-5월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계층 간 사교육 참여율 격차(44.3%p)가 발생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서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IV-4]는 각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보여준다. 대체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났다. 2000년에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교 3,155달러, 중학교 3,655달러, 고등학교 4,440달러, 고등교육기관 6,118달러로 초등학교가 가장 낮았고 고등교육기관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증가 정도에서 교육단계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초등학교 1만 2,535달러, 중학교 1만 3,775달러, 고등학교 1만 6,024달러, 고등교육기관 1만 1,290달러로 2000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그림 IV-4]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0-2018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연간 공교육비÷연간 학생 수. 공교육비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지수(PPP) 기준 환산액임.
 2) 공교육비의 경우 기존 교육기관 경상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합으로 산출되었으나, 2015년부터 교육기관 직접 지출로 산출 기준이 변경되었음.
 3) 2010년 이후 공교육비는 교육단계 미분류 프로그램 금액을 각 교육단계별로 안분하여 포함시킨 수치임(2010-2013년 자료는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수치 활용).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3-2021.
 통계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가장 낮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낮은 수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무관하지 않을 듯싶다. 실제로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26.6%로 OECD 평균 37.5%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대학생 1인당 투자 규모도 OECD 평균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OECD, 2021).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고용 안정성이 크게 낮아지고 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평생교육기관의 수와 그곳을 이용하는 학습자 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교육·훈련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림 IV-5]에는 2010년 이후 비형식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 수와 그곳을 이용한 학습자 수의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는 2010년 3,213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4,342개가 되지만, 2017년 4,032개까지 감소했다가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 현재 4,541개를 기록했다.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한 학습자 수는 2010년 2,702만 6,042명에서 2011년 2,892만 780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1,133만 6,564명으로 저점을 기록한다. 2017년부터는 학생 수가 다소 증가세로 전환해 2020년

현재 2,439만 7,282명까지 회복된 상태이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학습자 수가 격감한 것은 201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시설이 학원으로 전환되거나 폐원되면서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을 듣는 학습자가 크게 늘면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학습자 수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IV-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및 학습자 수, 2010-2020



주: 1) 기관 수는 조사기준일(해당연도 5월 1일)에 휴원, 폐원, 연락두절인 평생교육기관을 제외한 수치임.
 2) 학습자 수는 프로그램별 중복 학습자를 각각 학습자로 간주하여 합산한 것으로 프로그램 등록 건수로 해석할 수 있음.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평생교육통계편」,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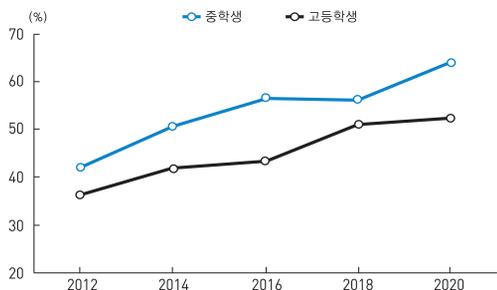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 지표들은 크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나뉜다. 학생수준 지표에는 학교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

법 만족도,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등이 포함되고, 학교수준 지표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및 교육방법 만족도, 부모의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에서 진행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V-6]은 중·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를 보여주는데, 두 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전 기간에 걸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높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 차이는 2016년이 13.0%p로 가장 컸고, 2018년이 5.1%p로 가장 작았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내용 만족도가 높아졌다. 중학생의 경우 교육내용 만족도가 2012년 42.1%였지만 2020년 63.8%로 크게 상승했다. 고등학생의 교육내용

[그림 IV-6] 중·고등학생 교육내용 만족도, 2012-2020



주: 1) 교육내용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3세 이상) 중 교육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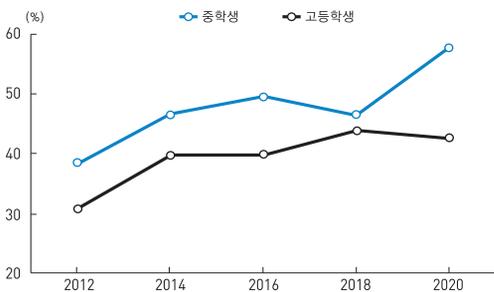


만족도도 2012년 36.3%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52.2%를 나타냈다.

[그림 IV-7]에는 중·고등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사의 수업이나 평가에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육내용 만족도에 비해 개별 교사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체로 중·고등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는 교육내용 만족도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든 시기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교육방법 만족도가 높았다. 두 집단 간 교육방법 만족도 차이는 2018년이 2.7%p로 가장 작았고, 2020년에 15.1%p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아울러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교육방법 만족도도 상승세를 보여 중학생은

[그림 IV-7] 중·고등학생 교육방법 만족도,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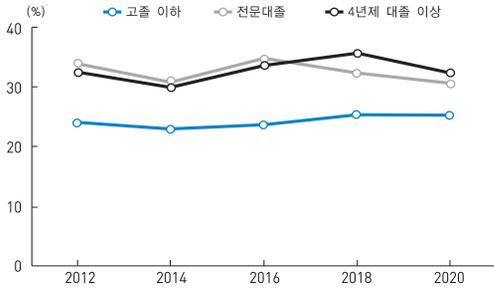
주: 1) 교육방법 만족도는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13세 이상) 중 교육방법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2년 38.3%에서 2020년 57.6%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경우 30.7%에서 42.5%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여 행위를 대표하는 자녀 학교운영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에는 자녀교육을 향한 관심과 상승이동 열망이 투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서구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 편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림 IV-8]에는 부모의 교육수준별 학교운영 참여도가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운영 참여가 활발해서 고졸 부모보다는 전문대졸 또는 4년제 대졸 이상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가 높았다. 2016년까지는 전문대졸 부모가 4년제 대졸 이상 부모보다 높은 학교운영 참여도를 보였지만, 2018년 이후에는 전문대졸 부모보다는 4년제 대졸 이상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고졸 부모, 전문대졸 부모, 4년제 대졸 이상 부모 모두 학교운영 참여도가 낮아진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가 폐쇄된 기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부모의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는 고졸 부모 25.3%, 전문대졸 부모 30.7%, 4년제 대졸 이상 부모 32.5%로 보고됐다.

[그림 IV-8] 부모 교육수준별 자녀 학교운영 참여도, 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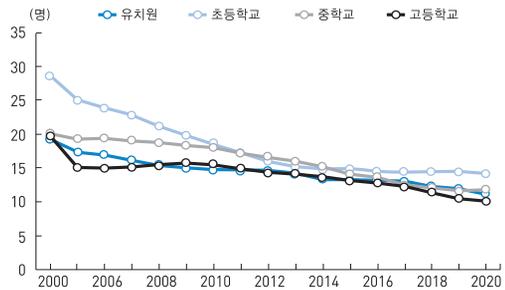
주: 1) 부모의 자녀 학교 운영 참여도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수업 참관, 급식 배부, 학부모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임.
2)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등은 이전 학교급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금까지는 교육·훈련의 과정 및 활동 영역에서 학생수준 주요 지표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수준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수준, 교수 및 학습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편이었으나 최근 상황이 많이 호전되는 추세에 있다.

[그림 IV-9]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교육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교육단계는 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에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8.7명에 달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학령기 아동이 격

감하면서 2020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4.2명으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교육단계보다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2020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교육단계는 고등학교(10.1명)이고, 유치원(11.4명), 중학교(11.8명), 초등학교(14.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어쨌든 모든 교육단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5명 이내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다.

[그림 IV-9]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2020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교원 수.
2) 교원 수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기간제교원이 포함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휴직교원 포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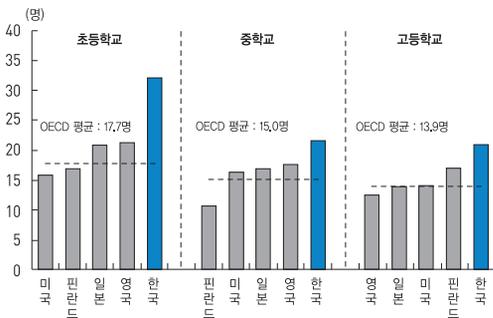
앞서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조밀했음을 지적했는데, 국제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IV-10]은 한국과 주요 OECD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는 거의 모든 교육단계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많았고,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 정도가 심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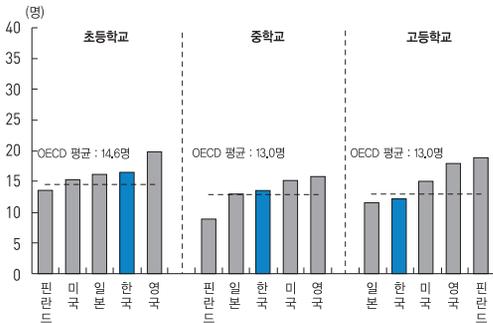
개선되면서 2018년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도달했고 중학교는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다. 다만 아직도 초등학교는 OECD 평균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10] OECD 주요 국가의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00, 2018

1) 2000년



2) 2018년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재적학생 수÷교원 수.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 2020.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

교육·훈련의 결과 및 성과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포착한다.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정도

로 측정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에서 얻은 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를 보여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과 TIMSS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수준을 살펴본 후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IV-1>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된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요구되는 수준의 학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학생들의 전반적 성취도가 낮아지고 계층 간 교육격차도 심화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표 IV-1> 성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2-2020

연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2학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2012	2.2	3.0	1.4	3.0	3.7	2.1
2013	3.3	4.4	2.1	3.4	4.2	2.4
2014	3.7	5.1	2.2	4.2	5.4	2.9
2015	3.5	4.9	2.0	4.2	5.7	2.6
2016	3.6	4.9	2.2	4.5	6.0	3.0
2017	4.3	5.5	3.0	6.3	8.2	4.4
2018	6.9	8.7	5.0	6.7	8.6	4.6
2019	6.4	8.2	4.4	5.5	6.8	4.2
2020	9.0	12.0	5.8	9.6	13.3	5.8

주: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2) 2017년도 평가 결과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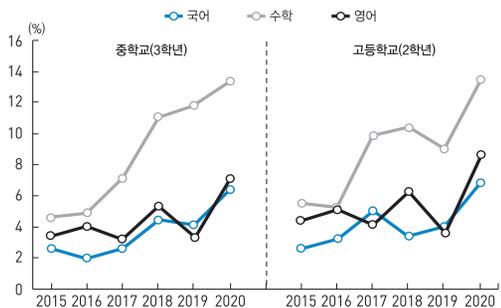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장기화가 초래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된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거나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 부진에 빠졌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장기간에 걸친 원격수업의 피해를 훨씬 더 크게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4.4%에서 2020년 5.8%로 1.4%p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에 남학생의 경우 8.2%에서 12.0%로 3.8%p나 급증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서 2019년 대비 2020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은 4.2%에서 5.8%로 1.6%p 증가에 그쳤으나 남학생은 6.8%에서 13.3%로 무려 6.5%p 폭증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남녀 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격차가 중학교는 6.2%p이고 고등학교는 7.5%p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실태는 과목에 따라 크게 다른 경향이 있다. [그림 IV-11]을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에서 2017년부터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2020년에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고등학교에

서는 전년 대비 4.5%p 증가했지만, 중학교의 경우 1.6%p 증가에 그쳤다.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대체로 안정적 추이를 보였지만 고등학교에서 2019년 3.6%에서 2020년 8.6%로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중학교에서도 2019년(3.3%) 대비 2020년(7.1%) 증가폭이 3.8%p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국어 과목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세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과목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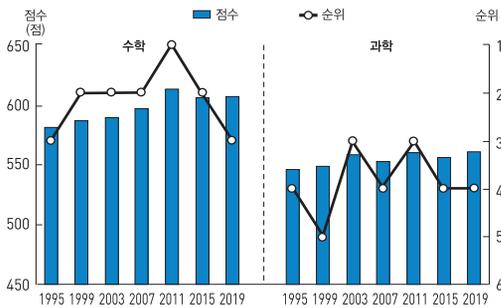
주: 1) 2017년도부터는 3% 표본 대상 평가 결과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도자료, 각 연도.

다음 단계 학습을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급증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기초학력 미달 급증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층 간 교육격차도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녀 간 성취도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IV-12]는 한국 중학생의 TIMSS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수준이 1995년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이 국제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이는 TIMSS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 및 과학 모두에서 세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학보다는 수학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성취도 점수 자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학 과목의 성취도 순위가 2011년 1위에서 2019년 3위로 하락한 점과 과학 성취도 순위가 2003년 이후 3-4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배경을 살펴보고 적절한 타개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12] 중학생의 TIMSS 수학 및 과학 성취도 점수와 순위, 199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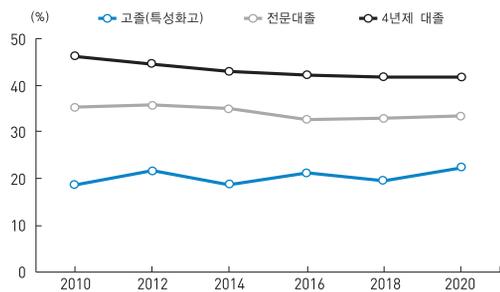


주: 1)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함.
 2) TIMSS 점수는 평균이 500점이며,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점수임. 400점 이상이면 '기초수준 이상', 475점 이상이면 '보통수준 이상', 550점 이상이면 '우수수준 이상', 625점 이상이면 '수월수준'으로 분류됨.
 3) 2019년 기준 39개국이 중학교 2학년 대상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시기별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일부 존재함.
 출처: IEA, TIMSS 2019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and Science, 2020.

전공과 직업 일치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적으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면 직업만족도, 정규직 취업 가능성, 임금수준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며,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사회적으로 근로자들의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높으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다.

[그림 IV-13]에는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구체적으로 고졸(특성학교) 취업자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여 지난 10년간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2010년 18.7%와 2020년 22.3% 사이를 탈피하지 못했다. 2-3년제 대졸 취업자의 전공과 직업 일치도는 지난 10년 내내 30% 초중반 수준에 갇혀있다. 4년제 대졸의 경우 2010년

[그림 IV-13] 교육수준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2010-2020



주: 1) 전공과 직업 일치도는 특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근의 직업이 전공과 일치(매우 일치한다+일치하는 편이다)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재학, 수료, 휴학, 중퇴 등은 이전 학교급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함.
 3) 고등학교 졸업자는 특성학교(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자만 포함되며, 대학원 졸업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46.3%였던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하락하여 2020년에는 41.8%를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어떤 교육수준에서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표 IV-2>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취업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66.2~68.1%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별화된 양상이 관찰된다. 즉 남성의 경우 2011년 70.7%이던 취업률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하락하여 2017년 67.8%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현재 69.0%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성의 취업률은 2011년 64.5%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며 2016년 66.4%까지 높아졌다가 2019년 현재 65.2%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률 추이를 고등교육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취업률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순으로 높았다. 4년제 대학의 경우 2011년에 비해 2019년의 취업률이 더 낮았지만, 전문대학의 상황은 그 반대였다. 최근 4년제 일반대에 다니던 중이나 졸업 후에 취업했다가 다시 전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을 헤아릴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고등교육기관별 취업률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남성의 경우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취업률이 67.5~70.7%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전문대졸 여성

<표 IV-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1-2019

	(%)			
	전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전체				
2011	67.6	67.8	65.5	79.2
2012	68.1	68.1	66.0	79.1
2013	67.4	67.9	64.8	78.5
2014	67.0	67.8	64.5	77.5
2015	67.5	69.5	64.4	77.8
2016	67.7	70.6	64.3	78.3
2017	66.2	69.8	62.6	77.7
2018	67.7	71.1	64.2	78.9
2019	67.1	70.9	63.3	79.9
남성				
2011	70.7	68.3	69.1	86.1
2012	70.6	68.5	68.9	84.6
2013	69.9	68.2	67.7	84.7
2014	69.0	67.5	67.2	83.3
2015	69.0	68.8	66.4	83.1
2016	69.0	69.5	66.3	83.0
2017	67.8	68.5	64.9	82.9
2018	69.6	70.7	66.7	83.6
2019	69.0	69.9	66.0	84.7
여성				
2011	64.5	67.3	61.7	68.7
2012	65.7	67.8	63.0	71.1
2013	65.1	67.8	61.8	70.3
2014	65.2	68.0	62.0	69.9
2015	66.1	70.0	62.4	70.9
2016	66.4	71.4	62.3	72.4
2017	64.8	70.8	60.4	71.3
2018	66.0	71.4	61.8	72.9
2019	65.2	71.6	60.6	73.8

주: 1)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 유학생+제외인정자))×100.

2) 조사시점 기준일은 해당연도 12월 31일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의 취업률은 2011년 67.3%에서 2019년 71.6%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4년제 대졸 남성의 경우 2011년 69.1%에서 2019년 66.0%로 취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여성 취업률은 60.4~62.4%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일반대학원을 마친 남성



의 취업률도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하락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2011년 68.7%이던 취업률이 2019년에는 73.8%까지 높아졌다. 2019년 현재 성별 취업률 격차는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는 일반대학원 졸업자 사이에서 훨씬 컸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2014년 이래 남녀 간에 취업률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2019년 현재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1.7%p 높았다.

맺음말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교육·훈련이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진행된 유례

없는 근대화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교육·훈련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이 크게 약화하면서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핵심 기제가 되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는 기간이 길어진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한편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너무 미온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하루바삐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 _____,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35a14e5-en>.

